

인민군대를 진정한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신 희세의 선군령장

김 희 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오늘 인민군대는 최고사령관을 중심으로 혁명적동지애와 의리에 기초하여 굳게 뭉친 진정한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강화발전되었으며 혁명적군풍과 강철같은 군기가 확립되고 정규화적면모를 훌륭히 갖춘 최정예전투대로 위용떨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19페이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병사들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믿음으로 인민군대를 진정한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강화발전시키신 희세의 선군령장이시다.

당의 두리에 전군이 하나의 전우로 굳게 뭉치고 천만군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불패의 단결은 우리 인민군대의 진짜위력이며 바로 여기에 군력강화의 기본열쇠가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인민군장병들을 최고사령관의 전우, 동지라는 고귀한 믿음으로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첩만첩의 성새, 방패로 준비시키신 희세의 선군령장이시다.

군대안에는 오직 상급과 하급간의 명령과 복종관계만이 존재한다는것이 세계군건설사에 뿌리깊이 남아있는 관념이다.

주체의 건군사에는 세계건군사의 이 낡은 관념에 종지부를 찍으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최고사령관과 전사의 관계를 혈연적관계, 도덕의리적관계로 발전시키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높으신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휘관과 병사는 다같은 최고사령관의 귀중한 전우들이라고, 우리가 믿는것은 대포나 로케트를 비롯한 그 어떤 현대식무장장비가 아니라 사랑하는 병사들이며 병사들을 위하여 지휘관도 있고 최고사령관도 있는것이라고 하시며 모든 군인들을 최고사령관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최고사령관의 제일혁명동지라는 고귀한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길에서 인민군장병들을 그 어떤 시련과 역경속에서도 당중앙과 영원히 사상과 뜻, 운명을 같이하는 진정한 혁명동지, 혁명전우로 내세우시고 당중앙을 결사보위하는 천첩만첩의 성새, 방패로 준비시키기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민족의 대국상이후 맞이한 새해 주체101(2012)년 첫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처음으로 찾으신 곳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이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날 한겨울의 추위도 아랑곳없이 온통 눈물범벅이 된 구분대지휘관들의 손을 짹 잡아주시고 이어 병사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사진을 찍으시면서 앞으로도 영원히 인민군장병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생ন길 헤쳐나갈 의지를

표명하시였다.

온 나라를 격동시킨 불멸의 화폭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현지시찰하시는 인민군부대, 구분대들마다에서도 펼쳐졌다.

적들과 총부리를 맞대고있는 최전연초소에서, 바람 세찬 비행장의 활주로에서, 군함의 갑판과 외진 섬초소의 돌계단에서 병사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찍으신 사랑의 기념사진마다에는 모든 군인들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최고사령관과 영원히 변치 않을 선군혁명동지가 되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당부가 담겨져있었다.

병사들을 최고사령관의 제일동지로 믿어주시고 그들이 있는 곳이라면 천리길, 만리길도 쉬임없이 찾고찾으시며 사랑과 정을 부어주시는 위대한 선군령장의 고매한 인품, 세인을 격동시키는 열화같은 전우애, 동지애에 의하여 전군의 불패의 단결은 백배, 천배로 다져지고 백두산혁명강군은 그 위력으로 자기의 위용을 만방에 떨칠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병사들을 위하여 복무한다는 자각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일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모든 중대를 만형, 만누이와 같은 정다운 동지들이 있고 풍성한 식탁과 포근한 잠자리가 마련된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드는데 병사들에 대한 헌신의 기준으로, 목표로 제시해주시고 모든 지휘성원들이 병사들의 생활을 잘 돌봐주도록 하시였다.

주체102(2013)년 10월에 진행된 조선인민군 제4차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대회와 주체103(2014)년 11월에 열렸던 조선인민군 제3차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신 문체도 지휘관들이 군인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 대회들에서 중대장, 중대정치지도원들이 모든 중대를 최정예혁명강군으로, 병사들의 정든 고향집으로 꾸리고 중대에서 최고사령관과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하시였고 대대장, 대대정치지도원들에게는 중대들의 맨 마지막병사에 이르기까지 이름과 나이, 고향, 생각과 취미, 식성까지도 환히 꿰들고있어야 하며 그들의 귀속말도 들어줄줄 알고 마음속상처도 따뜻이 품어줄줄 알아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동해안의 어느 한 섬방어대를 찾으시고 이 섬에서 수십여년 동안 싸움준비와 군인생활개선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한 방어대장의 노력을 값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서부전선의 어느 한 섬방어대를 찾으시여서는 싸움준비와 섬초병들의 생활보장을 위해 부단히 머리를 쓰고 땀을 바친 방어대장과 정치지도원에게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현지에서 직접 한등급의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해주시였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진정한 전우의 심정으로 병사들을 따뜻이 돌보는 지휘관들의 남모르는 수고도 제일먼저 알아주시고 최상의 영광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인민군부대 지휘관들은 《전군이 진정한 전우가 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병사들을 위하여 신발창이 닳도록 뛰고 또 뛰는 병사들의 친부모, 친형제가 되어 부대를 관병일치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집단으로 꾸려나갔다.

병사들에 대한 헌신을 지휘성원의 중요한 품모로 내세워주시고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군대는 진정한 전우부대, 동지부대가 되어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칠수 있

게 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는 열화같은 동지적사랑과 믿음으로 전군의 혼연일체를 비상히 강화하신 희세의 선군령장이시다.

우리 인민군대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총대로 보위하는 길에서 생사를 같이해나가는 혁명동지, 혁명전우들의 대오이다.

혁명적동지애로 뭉쳐진 전군의 강철같은 통일단결은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의 원천이다.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시였다. 혁명은 곧 동지이고 동지는 곧 혁명이라는 철리에 기초하여 동지를 얻는것으로부터 혁명투쟁을 시작하신 수령님께서서는 혁명적동지애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를 수놓아오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동지애의 구호를 높이 드시고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우리 혁명을 힘차게 전진시켜오시였다. 장군님께서 마련하여주신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한 일심단결은 억만금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혁명의 가장 귀중한 재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동지애의 역사를 그대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천만장병들의 친아버지가 되시여 선군혁명의 갈피마다에 가장 열렬하고 영원불멸할 사랑의 서사시를 새기시였다.

주체101(2012)년 8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장재도와 무도를 찾아가셨던 사실은 한 나라의 최고사령관이 적들의 포사격권안에 있는 위험천만한 곳을 호위함의 호위도 없이 그것도 태풍계절에 27hp의 작은 목선을 타시고 사랑하는 병사들을 찾아 생사를 각오하는 험한 바다길에 오른 력사의 전설로 길이 전해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파도세찬 풍랑길을 헤쳐 찾으신 섬초소들에는 서해안전방초소들인 초도와 월내도, 동해안전방초소들인 려도와 화도, 옹도도 있으며 헌신의 발자취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생전에 넘고넘으신 철령과 오성산을 비롯하여 초소의 병사들이 있는 그 어디에나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철령을 넘으시여서는 최전연부대 장병들에게 최고사령관은 동무들이 지켜선 전선을 집뜨락으로 생각한다고, 앞으로 자주 찾아오겠다는 약속을 하시였고 적들과의 거리가 불과 350m밖에 안되는 까칠봉초소에 가시여서는 이곳은 결코 외진 초소가 아니라고, 최고사령관이 동무들과 늘 함께 있다고 뜨겁게 고무해주시였다.

어느해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적들과의 첨예한 대결로 흐르는 공기마저도 팽팽한 판문점을 찾으시고 판문점초병들을 한품에 안아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신 날은 적들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감행되던 때였다.

세상에는 나라마다 군대가 있고 군대마다 최고사령관이 있다고 하지만 적의 검은 총구가 노리는 최전연의 병사들을 쉬임없이 찾으시고 최전방 한복판에서 병사들과 사진을 찍는 그런 군령도자는 일찌기 없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다심한 사랑속에 극도로 정세가 긴장한 시기에 최전방을 지켜선 섬초소군인들이 평양에서 휴식의 나날을 보내고 기재를 다루는 해병들의 손이 해풍에 트지 않게 은정깊은 조치가 취해지는 전설같은 이야기가 생겨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병사들에게 푸짐한 식탁과 포근한 잠자리를 마련해주시려고 늘 마음쓰시였다.

주체102(2013)년 5월 어느 한 부대 수산사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물고기를 많이 잡아 군인들에게 공급해주자고,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부탁이라고 절절히 말씀하시였으며 그후 6개월동안에 4 000여t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으시고는 찬바람을 맞으시며 머나먼 수산사업소를 또다시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물고기들이 가득찬 절임창고와 랭동저장실들에 들어가시여서는 너무 기쁘시여 바닥에도 스스럼없이 앉아 일군들과 함께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부대군인들이 집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물고기를 먹을뿐아니라 매일 먹는다고 좋아한다는데 고향에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이런 멋에 혁명을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섬초소병사들의 생활을 걱정하시며 위험천만한 서남전선의 최대열점지역에까지 나가시여 담수생산과 공급실태를 료해하시고 섬방어대들에 현대적인 바다물정제설비를 꾸려주시고도 몸소 현지에서 바다물이 맑고 시원한 담수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며 다심한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새로운 섬초소, 섬마을선경이 생겨난 천도개벽의 이야기도 군인들과 군인가족들을 남보다 더 잘살게 하시려고 마음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인민군전사들을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정치적생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빛내여주시였으며 혁명적동지애와 숭고한 도덕의리로 인민군전사들에게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시였다.

주체102(2013)년 10월 조국이 준 전투명령을 수행하는 길에서 구잠함 233호 용사들이 돌아오지 못하였다.

이 비보에 너무도 가슴이 아프시여 눈물도 많이 흘리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몸소 용사들의 묘를 찾으시고 떠나간 그들의 묘주까지 되여주시였다.

용사들의 묘비에 새겨진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함에는 그대로 최고사령관과 전사들이 한피줄을 잇고 사는 혈연의 정이 어려있고 당과 영원히 운명을 같이하는 용사들의 영생하는 삶이 비껴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속에서 값높은 영광을 받아안은 전사들속에는 어느 한 부대의 14명 육탄용사들도 있다.

병사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뜨거운 사랑의 서사시를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련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진정한 전우부대, 동지부대로 더욱 굳게 결속되였으며 최고사령관의 유일적령군체계가 철저히 서고 당중앙결사옹위정신, 총폭탄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한 혁명강군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주력군으로 준비되였다.

병사들을 제일동지로 믿어주시고 그들에 대한 열화같은 뜨거운 사랑과 정으로 우리 인민군대를 불패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는 희세의 선군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기에 백두산혁명강군은 영원히 당의 위업을 총대로 담보해나갈것이다.

실마리어 전우부대, 혁명강군